SNU New Music Series

Studio 2021

www.studio2021.co.kr

Performer's Studio I | Wen-Sinn Yang Cello

Concert
9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Workshop
9월 21일(금)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Performer's Studio II | Hyunah Yu Soprano

Concert
9월 24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Workshop
9월 26일(수) 오후 6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Performer's Studio III | Bella Hristova Violin

Workshop
9월 26일(수)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Composer's Studio | David Ludwig

Lecture
9월 24일(월)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Concert
9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SNU Young Pianists' Studio

Concert
10월 29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SNU Young Composers' Studio

Concert
10월 31일(수)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erformer's Studio IV | Chen Halevi Clarinet

Workshop
10월 30일(화)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Concert
11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erformer's Studio V

Ekkehard Klemm Conductor / SNU Singers & Players
Schönberg, Pierrot Lunaire Op.21

Special Lecture
9월 27일(목)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동 102호

Concert
12월 10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David Ludwig

Wen-Sinn Yang

Hyunah Yu

Bella Hristova

Chen Halevi

Ekkehard Klemm

S·E·P·T·E·M·B·E·R 9

9월 20일 (목)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erformer's Studio I – Wen-Sinn Yang, Cello
Concert
Werner Bärtschi | 이신우 | Aribert Reimann | Anton Webern | Claude Debussy | Arnold Schönberg
최희연 Pf. 윤혜리 Fl. 백주영 Vn. 임상우 Cl.

9월 21일 (금)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Performer's Studio I – Wen-Sinn Yang, Cello
Workshop

9월 24일 (월)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Composer's Studio – David Ludwig
Lecture

9월 24일 (월)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erformer's Studio II – Hyunah Yu, Soprano
Concert
David Ludwig | Arnold Schönberg| Hugo Wolf | William Bolcom
Francis Poulenc | John Corigliano | Osvaldo Golijov
손은정 Pf. Bella Hristova Vn. 이지윤 Va. 김 범 Cl. 전진주, 유효정 Vn. 양지욱 Vc.

9월 26일 (수)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Performer's Studio II & III – Hyunah Yu, Soprano / **Bella Hristova,** Violin
Workshop

9월 27일 (목)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동 102호
Special Lecture Schönberg, Pierrot Lunaire Op.21
음악학자 오희숙

9월 27일 (목)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Composer's Studio – David Ludwig
Concert
전상직 | David Ludwig
유현아 Sop. Bella Hristova Vn. SNU New Music Ensemble, David Ludwig Cond.

O·C·T·O·B·E·R 10

10월 29일 (월)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SNU Young Pianists' Studio
Concert
John Adams | 김현민 | John Corigliano | Salvatore Sciarrino | Carl Vine
David Ludwig | 유리나 | Luciano Berio | Tan Dun | 박강준
노한솔, 이예나, 이진현, 윤유정, 이미연, 이소인, 현가람, 박경선, 최현호 Pf.

10월 30일 (화)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Performer's Studio IV – Chen Halevi, Clarinet
Workshop

10월 31일 (수)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SNU Young Composers' Studio
Concert
이현진 | 유혜림 | 신나리 | 유리나 | 김새암 | 신은지
SNU New Music Ensemble

N·O·V·E·M·B·E·R 11

11월 2일 (금)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erformer's Studio IV – Chen Halevi, Clarinet
Concert
Sven Ingo Koch | Magnus Lindberg | Bruno Mantovani | 정태봉 | Krystof Maratka | Philippe Hersant
윤혜리 Fl. 김진선, 전지훈 Pf. SNU New Music Ensemble

D·E·C·E·M·B·E·R 12

12월 10일 (월)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erformer's Studio V – Ekkehard Klemm, Conductor / **SNU Singers & Players**
Concert **Schönberg, Pierrot Lunaire Op.21**
SNU Singers & Players, Ekkehard Klemm Cond.

Dean's Message

Studio2021의 새로운 시작에 즈음하여

김 영 욱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지난 2003년 음악대학 작곡과의 주관으로 시작된 서울대학교의 현대음악 시리즈 Studio2021이 올해로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작곡가 펜데레츠키, 탄둔 등을 비롯하여 세계 속의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시리즈를 통해 서울대학을 방문하였고 우리는 그들의 음악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지난 십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서울대학을 대표하는 현대음악시리즈로 자리매김한 Studio2021을 축하하며, 아울러 그동안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작곡과 교수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Studio2021은 올해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작곡과 이신우 교수를 음악감독으로, 그리고 기악과 최희연 교수를 공동 프로그래머로 위촉하여 작곡과를 중심으로 기악과 및 음악대학 내 모든 과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방식으로 탈바꿈합니다. 올해로 탄생 백주년을 맞이하는 쉰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는 이번 음악제의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9월 음악학자 오희숙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12월에는 Ekkehard Klemm 교수의 지도로 성악, 기악과 학생들이 〈달에 홀린 피에로〉 전곡을 서울대 초연합니다. 또한 첼리스트 Wen-Sinn Yang 교수와 최희연, 백주영, 윤혜리 교수, 클라리넷 임상우 선생이 쉰베르크의 실내교향곡 op. 9의 오중주 버전을 함께 무대에 올리는데, 이 연주는 앞으로 진행될 Studio2021의 방향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Studio2021이 음악가들의 깊은 정신세계와 예술성을 담은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연주하고 연구하여 이를 후세대에 교육하고 계승하는 훌륭한 음악 시리즈로 거듭 발전하기를 바라며 이 글로 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Studio2021
Music Director's Notes

이 신 우 (작곡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Studio2021 음악감독)

문헌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연주 해석이 오랜 시간 역사를 통해 차곡차곡 쌓여온 고전 작품들과 달리 이제 막, 갓 태어난 현대음악들은 고전 작품들과 경쟁하기에 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왔습니다. 때로 작곡가들은 연주자와의 몇 차례 리허설을 거친 상태에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고쳐야 하나 그대로 두고 다시 연주해 봐야 하나...' 대다수의 젊은 작곡가들은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작품의 초연 후 허탈해 지거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작곡한 곡을 원래 자신이 의도한 대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초연 시에 종종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연구한 후 연주되는 고전 작품들과 달리 이전에 알던 익숙한 음악들과 다른 낯설고 어려운 새로운 음악을 고전과 비교할 수 없이 분주히 이루어지는 열악한 연습 환경 속에서 무대에 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Studio2021을 진행해 오면서 꿈꿔왔던 것은 고전음악들이 연주되는 것과 동일한 연습 시간과 리허설 횟수, 연주자의 관심과 열정 속에서 현대의 작품들도 연주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작곡가를 만나는 것이 연주자에겐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피아니스트 최희연 교수와 Studio2021을 공동 기획하게 된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참으로 큰 기대와 포부를 갖게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Studio2021의 방향을 놓고 고민한 것은 이것입니다. 연주자들과 작곡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음악적 풍토를 학내에 만들어 나가는 것, 서울대학을 방문하는 저명 음악인들과 음대 교수진의 앙상블 및 코칭을 통해 20세기 음악부터 차근차근, 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현대음악을 접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 단순히 현대음악의 새로움과 이질성을 넘어서 현대음악 속에서도 음악의 '아름다움' 을 재발견하고 이를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진 20세기 작곡가부터 역사의 산 증인인 음악의 거장들과 현존하는 젊은 작곡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음악을 아우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올해 가을시즌에 초청된 작곡가는 커티스 음악원 작곡교수로 재직 중인 미국 작곡가 데이비드 루드윅입니다. 루드윅은 9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서울대를 방문하여 작곡과 학생들 뿐 아니라 기악과 학생들과도 워크샵 및 연주 리허설을 갖게 됩니다. 현존하는 작곡가와의 작업이 얼마나 흥미로운 실제적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 주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가을 시즌에는 뮌헨음대 교수로 재직하며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연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첼리스트 웬신양과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진이 함께 하는 쇤베르크의 〈실내교향곡 op.9〉의 오중주버전 학내 초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 백주영, 플룻 윤혜리, 피아노 최희연 교수와 서울시향 부수석 주자로 활동 중인 클라리넷 임상우 선생과 웬신양 교수가 함께 하는 이 연주는 앞으로 학생들이 20세기 이후 작곡된 현대음악을 배워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교육의 모범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Studio2021에 특별히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준 피아노전공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1월에 공연될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연주하는 현대음악연주회는 피아노전공 교수진이 뽑은 두 명의 서울대 작곡과 학생들의 작품을 포함해서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흥미롭게 칠 수 있는 다양한 현대음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오희숙 교수의 강의와 클라리네티스트 Chen Halevi와 Ekkehard Klemm 교수의 지도로 서울대 성악, 기악과 학생들에 의해 공연되는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프로젝트와 더불어 서울대학의 기악과 학생들이 새로운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현대음악을 배우고 연주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외에도 소프라노 유현아, 클라리네티스트 헨 할레비 등 국제무대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서울대를 방문하여 음악대학 학생들과 함께 연주합니다. 이 공연들은 현대음악이 꼭 어렵고 난해한 것만이 아니라 서정적이고 아름다우며, 새로운 음악적 매력과 아이디어로 충만하고, 또한 우리가 고전음악에서 느끼는 것과 형태는 다르지만 감동은 동일한, 음악에 있어서의 참 가치와 즐거움을 전해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보다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Studio2021 가을 시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 희 연 (피아니스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Studio2021 공동프로그래머)

연주자에게 작곡가를 만나는 것은 꿈입니다. 이미 먼 세월 속에 묻혀버린 그의 자취를 찾아 책을 뒤지고 뮤지엄에 찾아가 그의 흔적이라도 더듬어 봅니다. 연주자는 악보 속에서 작곡가의 목소리를 듣고자 온 마음을 다 합니다. 그러기에 생존하는 작곡가와 함께 하는 작업은 연주자에게 가슴 두근거리는 경험입니다.

현대음악은 어느 시대 음악보다 우리에게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음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의 음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여러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현대' 예술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정의내릴 수 없다는 점일 겁니다. 다양한 음악어법이 공존하며 실험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계의 전선에 서 있는 작곡가들과 함께 정신을 나누고 조언을 서로 아끼지 않는 것은 연주자에게 큰 활력소가 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전 시대에는 작곡가와 연주가의 구분이 따로 없었지요. 작곡가는 연주의 메카니즘을 연주자는 작곡의 메카니즘을 몸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주와 서신을 통한 빈번한 교류로 시대 정신, 예술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지요. 지금 연주자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것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 또한 그것입니다.

초청된 해외 연주자들 - 유현아, Wen-Sin Yang, Chen Halevi, Ekkehard Klemm 교수 - 은 현대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특별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이미 그 전 시대의 작품들의 연주로 국제적인 명성을 이룬 아티스트들입니다. 이분들의 워크샵과 함께 준비하는 연주회를 통해 기악과, 성악과 학생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작품을 읽는 일반적인 자세, 현대 작품들이 연주자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점, 작곡가의 고유 어법 등을 함께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서 서로 간에 기분 좋은 자극과 함께 음악이 더욱 생명을 얻길 기대해 봅니다.

Schönberg, Pierrot Lunaire Op.21

Special Lecture

9월 27일(목)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동 102호

연사 : **오 희 숙**

이화여대 피아노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음악학 석사 및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전공 부교수
한국서양음악학회 회장

주요 저서
『20세기 음악1 : 역사, 미학』, 『20세기 음악2 : 시학』, 『음악 속의 철학』, 『철학 속의 음악』

현대음악의 새로운 미학적 패러다임

- 탄생 100주년을 맞은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에 대한 소고

오 희 숙 (음악학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쇤베르크의 도전과 도발은 이전에 그랬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 그리고 그의 그 어떤 작품도 ≪피에로≫ 만큼 직접적으로 그러한 도전과 도발을 구체화하지 못한다." (A. Whittall)

1. ≪달에 홀린 피에로≫ '고전' 이 된 '현대'

쇤베르크(A. Schönberg, 1874-1951)의 ≪달에 홀린 피에로≫(Pierrot lunaire)는 1912년 3월부터 작곡되기 시작하여 9월 9일 쇤베르크의 38세 생일 4일 전에 총보가 완성되었고, 10월 15일 공식 초연되었다. 이제 ≪달에 홀린 피에로≫(이하 ≪피에로≫로 축약)는 100회째 생일 맞게 된 것이다. 과연 이 작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1)]

지금 들어도 익숙하지 않은 불협화음과 독특한 성악 선율을 들으면 이 작품이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음악의 대표적 작품' 으로, 현대음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넘어야 할 산' 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피에로≫의 초연 후, "이것이 음악이라면,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2번 듣게 하지 마소서"라는 비평가(O. Taubmann)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다. 현대음악의 미학적 전령사로 평가되며, 쇤베르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뚜렷하게 피력한 아도르노(Th. W. Adorno)도 "고백하건데, 음성의 외침, 즉 음이 나오고, 바로 그 음을 떠나는 그런 것이 이전에는 신경에 거슬렸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 곡을 여러 번 연주 · 녹음한 불레즈(P. Boulez)도 한

1) 이 글은 필자의 저서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세계 2009)를 토대로 쓴 것이다. 각주 및 고문헌은 생략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저서를 참고할수있다.

때 "이 곡에 대해 알레르기를 가졌었다"고 말할 정도로 ≪피에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딱 맞는 것인지 알게 된다"고 하면서, "≪피에로≫와 같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작품은, 신음악에서 아주 드물다"고 아도르노가 격찬하고 있듯이, 이 작품에 담겨진 개성있는 음악기법과 깊이 있는 미학적 함축성은 이 곡의 탄생이래로 음악사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의 역사적 의미는 확고하며, 20세기 음악사에 미친 영향 또한 지대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피에로는 이러한 엄청난 효과를 발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도르노는 "확실한 것은 이것이 쉔베르크의 그 어떤 작품가운데도 가장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쉔베르크의 창조적 천재성의 독특한 특성이 집약적 방식으로 나타난 작품"(I. Stravinsky), "천재적인 작품"(P. Stadlen),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품"(H. Weber) 등 이 작품에 대한 찬사는 끝이 없다. "확실히 ≪피에로≫는 거기에 한번 빠지면, 결코 놓아주지 않는 작품"(F. Cerha)일 것이며, "아마도 우리는 그에게 ≪피에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이다."(P. Boulez)

이러한 평가는 오랫동안 축적된 이 작품에 대한 많은 연구, 지속적인 공연과 수많은 음반과 영상물이 증명하고 있다. 근 300년이상 지속된 조성이 해체된 '무조음악'이라는 당대의 혁신적인 시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이 성악작품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에로≫는 오늘의 시점에서 "현대음악의 고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탄생된 지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현대음악을 대변하는 작품 중 하나로 간주되며, 20세기 음악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 쉔베르크의 ≪피에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을 청취할 때, 이 작품을 직접 연주할 때, 또 이 작품을 분석하고 미학적 의미를 연구할 때, 우리는 다양한 시각에서 ≪피에로≫의 독특한 예술성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이 글에서는 - 작품의 탄생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는 다섯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피에로≫의 세계에 접근해 보겠다.

2. 탄생 배경과 초연

쉔베르크의 ≪피에로≫는 벨기에 문학가 지로(A. Giraud)가 쓴 50편의 시 모음집(1884년)을 하르트레벤(O. Hartleben)이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가사로 사용하였고, '말하는 선율'(Sprechstimme)을 사용한 성악파트와 8개의 악기로 편성되어 있다. 이 작품을 접하면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은 이 곡의 탄생 배경이 될 것이다. 쉔베르크는 어떠한 계기로 이 작품을 작곡하게 되었을까?

≪피에로≫의 탄생사를 살펴보면, 이 곡의 작곡 동기가 쉔베르크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인하였다는 예상외의 사실이 나타난다. 이 작품이 주는 강한 인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은 쉔베르크가 자발적으로 이 작품의 작곡을 시작했으리라 추측하기 때문이다. 이 곡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연극배우이며 멜로드라마를 전문으로 연주하는 성악가 체메(Albertine Zehme)였다. 체메는《니벨룽엔의 반지》에 출연한 경험을 가진 멜로드라마 연주자로서, 쉔베르크를 알았을 당시에는 이미 말로 하는 음악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바 있다. 1912년 빈에서 베를린으로 이사를 온 쉔베르크는 1월 25일 베를린 음악 매니저 구트만(Emil Gutmann)을 통해 "체메 박사의 연주를 위한 '달에 홀린 피에로' 연곡을 작곡해 줄 것"을 "높은 위촉료 1000마르크"로 제안 받았다. 체메를 통해 지로/하르트레벤의『피에로』시를 읽게 된 쉔베르크는 일기장에 "멋진 아이디어에 감동을 받았고, 바로 내 스타일. 위촉료가 없더라도 작곡하고 싶다"고 기록하였다. 쉔베르크가 관심을 표명한 바로 다음 날인 1월 26일 체메는 쉔베르크에게 "하르트레벤의 굉장한 작품에 당시의 천재성으로 작업할 의사가 있다는 기쁜 소식"에 감사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1912년 2월 4일 쉔베르크와 체메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후 체메는 쉔베르크에게 피에로에 관련된 텍스트를 모두 보냈다. 체메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3월 10일 쉔베르크는 작곡계약을 맺게 되었다. 한동안 작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쉔베르크는 1912년 3월 12일 "오후에 갑자기 작곡하고 싶은 충동이 아주 강하게 생겼다. 매우 오랜만에! 나는 결코 작곡하지 못하리라는 가능성까지 생각했었다"라고 쓰고 있다. 바로 이날 그는 ≪피에로≫ 중 한 곡인 〈피에로를 향한 기도〉를 처음 작곡하였고, "내 생각에 이것은 아주 잘 될 것 같다. 그것은 많은 자극을 준다"고 만족하였다.

첫 곡을 작곡한 후 쉔베르크는 약 한 달간의 짧은 공백을 가졌고, 이후 4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거의 쉬지 않고 집중적으로 ≪피에로≫의 작곡에 몰두하였다. 3월에 처음으로 작곡한 〈피에로를 향한 기도〉와 7월에 마지막

으로 작곡한 〈십자가들〉를 제외한다면, 이 연곡의 대부분의 곡은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작곡되었으며, 몇몇 곡은 하루에 완성된 것으로 기록된다. 이에 따르면 ≪피에로≫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작곡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곡에 관련된 모든 원본 자료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쉔베르크 비평판 전집』에서 '피에로 총보'를 편집한 음악학자 브링크만(R. Brinkmann)에 의하면 쉔베르크는 여러 단계의 스케치 과정을 거쳐 많은 수정을 하면서 작품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결된 이 작품은 "일곱 개의 시가 세 번 나오는 곡. 성악 성부, 피아노, 플루트(또는 피콜로), 클라리넷(또는 베이스클라리넷), 바이올린(또는 비올라) 그리고 첼로"라는 제목으로 1914년 유니버셜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체메에게 "깊은 우정으로" 헌정되었다.

6월부터 ≪피에로≫의 리허설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쉔베르크 스스로도 적극 참여한 약 25번의 리허설을 거쳐, 마침내 이 작품은 10월 15일 체메의 출연으로 초연되었다. 당시 초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피아니스트 스토이어만은 초연에 대해 "체메가 피에로 분장으로 나왔을때, ... 아주 투덜거리는 청중들이 그녀를 맞이하였다. ... 물론 젊은 세대의 열광적 박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화를 냈다"고 회상하였다. 그렇지만 초연 자리에 있었던 베베른은 베르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 물론 첫 번째 부분이 끝난 후 몇몇의 날카로운 소리와 휘파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두 번째 부분이 끝난 후에는 열광이 있었으며, 세 번째에는 한 부분에서, 뻔뻔스럽게 웃었던 사람 때문에 한동안 소요가 있었고, 그래서 쉔베르크는 다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저항의 흔적은 없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성공이었다.

베베른의 언급처럼 전반적으로 초연에서 청중의 반응은 큰 박수갈채로 인해 반복 연주까지 될 정도로 긍정적이었다. 이는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던 쉔베르크의 ≪현악4중주 op.10 no.2≫의 초연과 비교할 때, 굉장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피에로≫에 대한 비평도 상반되게 나타났다. 『일반 음악신문』(Allgemeine Musik-Zeiting)에서 리젠펠트(Paul Riesenfeld)는 쉔베르크 표현 방식의 성실함을 인식한 듯하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였고, 비평가 가이슬(F. A. Geiβl)도 "입체주의와 미래주의를 연상하게 하는 이러한 색채-음악을 15분 이상 참고 들어야 한다는 것은 고통이었다"고 뚜렷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비평문도 대거 발표되었으며, 특히 ≪피에로≫에서 새로운 음악의 희망을 보는 비평가 케르(A. Kerr)의 평은 의미심장하게 보인다:

> 달에 홀린 피에로... 그것은. .. 나에게 음악의 종말로 나타나지 않는다.
> 그 보다는 경청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다.(Alfred Kerr, Pan, III/5, 1912. 11. 1)

이렇듯 당대에 이미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되었던 ≪피에로≫는 초연 후 유럽 전역에서 공연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3. ≪피에로≫를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각

(1) "아이러니적이고 풍자적인 음": 쉔베르크의 가사 선택

쉔베르크의 ≪피에로≫는 벨기에 시인 지로(Albert Giraud, 1860-1929)의 시를 하르트레벤(Otto Hartleben, 1864-1905)이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가사로 사용하고 있다. 1884년 출판된 『달에 홀린 피에로. 베르가마스크의 론델』(Pierrot lunaire. Rondels bergamasques)의 저자 지로는 파리의 전위적 문학 그룹인 파르나시앙의 이념을 물려받은 "젊은 벨기에"(Le Parnasse de le Jeune Belgique)의 일원으로, 당시의 상징주의적 문학과 데카당스 사상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피에로』의 창작 배경을 설명하는 데 그는 "... 시대를 분석할 생각도 없으며, 기독교식으로 도덕화할 생각도 없으며, 더군다나 사진과도 같이 현실을 묘사해야 한다는 사실주의에도 반대"하며, "그 대신 문학적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자신의 모토를 밝혔다. 지로에게 중요했던 "문학적 상상력"은 〈피에로〉라는 광대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전개되었는데, 사실 하얀 옷을 입고 관객의 마음을 잡아 흔드는 광대 〈피에로〉는 역사적으로 문학 · 연극 ·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주제로 사용되었고, 특히 1900년을 전후로 한 세기 전환기에는 매우 유행하였다.

지로의 『피에로』는 50편의 시를 담고 있는데, 50편 모두 옛 론도 형식의 13행(4+4+5)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1행은 7행과 13행에 반복되며, 2행은 8행에서 반복된다. 이 형식은 하르트레벤의 번역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14세기부터 유행한 프랑스의 집단 무곡 '롱델'에 의거한 것으로, 독창자와 합창자가 번갈아가면서 노래하는 롱델은 원래 8행

으로 구성되었는데, 지로는 이를 13행으로 확장하였다. 실제로 지로 시집의 부제가 "롱델"인 것은 이 형식과의 연관성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로의 『피에로』에는 이탈리아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통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새로운 피에로의 이미지이다. 먼저 지로는 피에로의 죽음을 자신의 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당시 회화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이 주제를 문학적으로 차용하였다. 즉 이 작품에는 죽음에 대한 은유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50개의 시 가운데 5개가 죽음을 다루며, 죽음의 방식은 "교수대", "기요틴", "참수", "자살", "투신" 등 다양하다. 그런데 여기서 죽음은 유미주의적으로 미화된다. 예를 들어 -쉰베르크가 선택하지 않았던 시 가운데- "피에로는 교수형 줄을 졸라 목을 줄로 장식한다"는 시구(詩句)가 나오며, 제49번 시에서는 피에로가 달에 대한 사랑으로 계단에서 날아오른다고 '피에로의 자살'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지로 시의 특징은 주인공 피에로와 달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18세기 이래로 회화와 문학에서 다루어진 달과 피에로의 관계는 이 시의 중심 주제로서 달에 대한 피에로의 사랑은 "열에 들떠 활짝 열린 그대의 눈길은, 낯선 멜로디처럼 나를 사로 잡는다"(쉰베르크 작품의 제7번)라는 시구에서 절정을 이룬다. 흥미로운 점은, 달에 관련된 시의 내용에 색의 은유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색채를 통해 흐름의 변화를 드러내는 기법은 상징주의적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로의 시에는 이러한 측면이 잘 반영되었다. 즉 "달빛은 수정같이 투명하며, 은처럼 밝고, 하얗고, 창백하며, 납 같다. 달은 하얀 가슴을 가지고 있으며, 달의 불꽃은 창백하다. 달빛 아래서 빨래하는 여자는 핏기 없어 보이며, 은처럼 하얀 팔로 색이 빠진 수건을 빤다. 여인의 입술은 창백하다."

더 나아가 지로의 시는 극단적인 이방인인 피에로의 운명을 예술가의 순교와 동일시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의 시에는 종교적 성향이 아이러니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이 보여 주듯이 지로의 『피에로』는 시민적 선과 미의 관념과는 거리를 두는 세계를 보여 준다. 이 작품은 배우가 피에로로 분장을 하고 낭송하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으로서, 아이러니적 회의주의, 한 시대의 병폐적 민감성, 유미주의와 히스테리같은 세기말의 전형적인 강박 관념 등을 그로테스크하게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번역자 하르트레벤은 이 시를 번역할 당시 39살의 문학사 전공 만년 대학생으로서, 몇 년에 걸친 오랜 작업 끝에 1891년 9월/10월에 번역을 완성했다. 그의 번역 작업은 문학적 측면에서 '번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창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쉰베르크는 부록과 서문이 붙은 이 판본을 대본으로 사용하여, 50개의 시 가운데 21개를 뽑아 7개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음악을 완성하였다.

〈표1〉 ≪달에 홀린 피에로≫의 구성

I	1. Mondestrunken 달에 취하여 2. Colombine 콜롬비네 3. Der Dandy 멋쟁이 4. Eine blasse Wächrin 빨래하는 창백한 여인 5. Valse de Chopin 쇼팽의 왈츠 6. Madonna 마돈나 7. Der kranke Mond 병은 달
II	8. Die Nacht 밤 9. Gebet an Pierrot 피에로를 향한 기도 10. Raub 강탈 11. Rote Messe 붉은 미사 12. Galgenlied 사형장의 노래 13. Enthauptung 참수 14. Die Kreuz 십자가들
III	15. Heimweh 향수 16. Gemeinheit 비열함 17. Parodie 패로디 18. Der Mondfleck 달의 얼룩 19. Serenade 세레나데 20. Heimfahrt 귀항 21. O alte Duft 오 옛 향기여

그런데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사항은 '왜 쉰베르크가 이 시에 관심을 보이고 열광을 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어떤 요인이 쉰베르크에게 지로/하르트레벤의 시의 매력으로 다가왔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로의 시에 나타난 데카당스적 분위기와 상상력이 쉰베르크의 예술성을 자극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하얀색과 빨간색 같은 색채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는 것, 허구적이고 신경질적인 음악적 판타지 등이 당시 그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쉰베르크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을 것이다. 또한 지로의 시에 나타난 어릿광대적인 인물 '피에로'는 달에 중독되어 히스

테리적이며, 세계와 자신의 괴팍함에 고통당하는 외로운 예술가의 모습, 자신의 이상을 열광적으로 추구하고 돈을 경멸하며, 자신의 슬픔을 걱정하지 않고 보헤미안의 불안정한 생존을 사는 예술가의 모습을 드러낸다. 쇤베르크는 이러한 피에로에서 세상에서 소외된 이방인이지만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 우스꽝스러운 웃음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인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쇤베르크는 피에로에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 즉 역사적 상황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발견하였고, 이를 음악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쇤베르크가 ≪피에로≫에 관해 훗날 "내가 원래 이 작품에서 의도"하였던 것은 "이 가볍고, 아이러니적-풍자적 음"이라고 말하며, 은유적으로 드러낸 비판에 대해 언급한 것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쇤베르크는 피에로를 통해 사회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고 아이러니와 풍자로 비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쇤베르크의 개인적 상황도 이 시에 대한 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쇤베르크는 당시 작곡가로서 비판적 비평가와 청중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새로운 무조성의 길로 접어들어 자신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문제에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작곡 및 음악 이론적 작업에 뿐만 아니라 그림과 철학에 관심을 가졌고, 1907년에는 화가 게르스텔(R. Gerstel)을 만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부인은 화가와 사랑에 빠져 가족을 떠났고, 다시 돌아왔지만 곧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수성 예민한 작곡가인 쇤베르크는 정신적 혼란과 함께 신념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쇤베르크는 새로운 돌파를 위해 1911년 빈을 떠나 베를린으로 이주 하였으며, 1911년『화성학』출간 및 칸딘스키와의 활발한 서신 교류 등으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쇤베르크는 지로 / 하르트레벤의 시집에서 - 스스로 말하듯이 - "영혼의 움직임"을 읽어 낸 것이다. 그는 피에로를 작곡하면서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발견해내면서, 이를 음악적으로 옮겨 내는 것을 작곡의 과제로 보았다. 그는 '피에로'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예술적 작업을 전개한 것이다. 1916년 쇤베르크가 이 작품 총보를 첼린스키에게 헌정하면서 보낸 편지는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

사랑하는 친구여, 1916년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원합니다. 말하기는 좀 유치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러한 달에 중독된 소시지입니다. 이는 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옷에 망상으로 존재하는 달의 얼룩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심자가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기뻐합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물질을 거의 높이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기적을 무시하는 것에서 우리의 적에 대한 멸시가 나오고, 달빛을 희생하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이 생겨납니다. 피에로-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장엄해집니다. ....

즉 지로 / 하르트레벤의 시는 쇤베르크에게 ≪피에로≫ 작곡의 원동력을 주었고, 음악의 내용적, 형식적 표현 가능성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쇤베르크는 이 시를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비판적 거리감을 두고 독자적인 시각에서 "풍자와 아이러니"로 개성 있게 다루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쇤베르크의 ≪피에로≫는 "우리 세기의 가장 위대한 휴먼 다큐멘트 중의 하나"라는 브링크만의 지적을 주목하게 된다.

(2) "색채는 모든 것" : 새로운 음색의 구현

20세기 들어 '음색'이 새롭게 부각되었다면, ≪피에로≫는 "반은 노래하고 반은 말하는" 특이한 성악기법과 섬세한 악기 편성을 통해 이 측면을 그 어떤 작품에서보다 중요하게 다루었다. '말하는 선율' (Sprechstimme)이라 명명된 성악 파트는 이 작품의 전체적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전통적 성악 기법에서 벗어난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쇤베르크는 첫 출판 악보 서문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비교적 엄격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말하는 선율'은 "노래하도록 된 것"이 아니며, "연주자는 ... 표시된 음높이에 잘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를 말하는 선율(Sprechmelodie)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때 연주자는 리듬을 "노래할 때처럼, 아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하고, 반면 음높이는 단지 짧게 소리 내고 곧 이를 떠나야한다. 또한 "노래하는 듯한 말의 방식에 빠져서도 안 되고", 말하는 것이 "노래를 연상시켜서도 안 된다".

이러한 설명에서 드러나는 '음악적 기보'와 '의도된 말하는 낭송'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는 특히 연주자들의 입장에서 많이 지적된 바 있지만, 쇤베르크의 언급은 '말하는 선율'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표2〉 ≪달 에 홀린 피에로≫의 악기편성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전체 악기수
		플루트	피콜로 플루트	A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		
No.1	o	o				o		o	4
2	o	o		o		o			4
3	o		o	o					3
4		o		o		o			3
5	o	o		o---	(--› o)				4
6	(o)	o			o	o		o	5
7		o							1
8	o				o			o	3
9	o			o					2
10	(o)	o		o		o		o	5
11	o		o		o		o	o	5
12			o				o	o	3
13	o	(o)			o		o	o	5
14	o	o		o		o		o	5
15	o			o		o			3
16	o		o	o		o		o	5
17	o		o	o			o		4
18	o		o		o	o		o	5
19	o	(o)		(o)		(o)		o	2 (5)
20	o	o		o		o		o	5
21	o	o---	› o	o	› o	o	› o	o	8

이는 전통적 음악 기호를 사용하여, 음절의 길이, 악센트, 낭송 리듬과 말하는 쉼표 등을 고정 하였지만, 음표의 기둥에 x표로 기보하였고 성악 파트를 총보에 "낭송"(Rezitation)이라 지칭하여 전통적 기법과 차이를 두었다. 이 성악 선율의 사용을 통해 ≪피에로≫ 는 전통적 성악에 내재한 음향의 가능성을 새롭게 드러내면서 강렬하고 풍부한 표현력을 갖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언어 영역에서의 해방된 작품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음색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 소규모 앙상블의 다양한 배합과 표현력이라 할 수 있다. 쇤베르크는 성악성부 외에 8개의 악기를 사용하였고, 5명의 연주자들이 연주하도록 배당하였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쇤베르크는 8개 악기라는 소수의 악기만으로도 여러가지 편성 가능성을 실현하여, 놀랄만한 다양한 음색을 창출하였다. 말하는 선율 외에 한 개의 악기(플루트)만 등장하는 제7번 〈병든 달〉의 간단한 편성부터 맨 마지막 곡 〈오 옛 향기여〉처럼 8개의 악기가 모두 등장하여 화려한 종결을 시도하는 곡까지, ≪피에로≫에서는 악기의 다양한 배합이 시도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음색을 드러낸다. 전통적 오케스트라 또는 실내악 편성에서는 음향적 동질성 속에서 가능한 한 융합의 단계에 도달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면, 쇤베르크는 대조와 변화를 통한 "음향 팔레트"(H. H. Stuckenschmidt)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피에로≫에서 각각의 모든 악기는 색채적 극단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1912년 6월 5일 출판사로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음색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바 있다:

· · · 그 어떤 지휘자도 내 작품의 피아노 버전으로 이 작품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상을 받을 수 없다! 바로 이 작품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여기서 색채는 모든 것이며, 악보는 아무것도 의미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에 대해서는 오로지 총보만이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피에로≫에서 기악 파트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점은, 많은 악곡에서 성악보다는 기악이 중심 선율을 담당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음색을 창출하는 기악 파트는 악기 배합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주 기법을 통해서도 더욱 첨예화되었다.

전체적으로 악기는 음향적 영역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 영역에서도 중요하다. 첼로는 쇤베르크가 직접 연주하였던 악기로서, 예술가 주제가 처음 나오는 곳, 즉 "달" 또는 "눈으로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창작의 도취로 빠지는 시인을 상징해서 나타난다. 플루트는 달을 상징하며, "낭만적 감정 동요"를 나타낸다면, 피콜로플루트는 한편으로는 피에로 행동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빛" 또는 "광채"를 표현한다. 주관성과 개인적 요소는 클라리넷을 통해 특징화되며, 바이올린, 그리고 부분적으로 비올라는 "낭만적" 요소를 상징한다. 음악학자 바인호른(G.

Beinhorn)은 특히 악기 각각의 특성을 유형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플루트는 "멜랑콜리적, 그리움에 가득 찬 분위기", 피콜로 플루트는 "피에로의 익살스럽고 건달패 같은 모습", 바이올린은 "상투적으로 감상적인 부분", 첼로는 "낭만적인 살롱음악의 분위기" 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마이어(A. Meyer)는 개별적 악기에 특정한 성격을 부여하는 해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보다는 각각의 악기가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마이어는 말하는 선율이 사건을 설명한다면, 악기는 강조적으로 주관적인 측면을 구체화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이, 악기의 편성과 개별적 악기는 이 곡에서 음색적 측면 뿐 아니라 의미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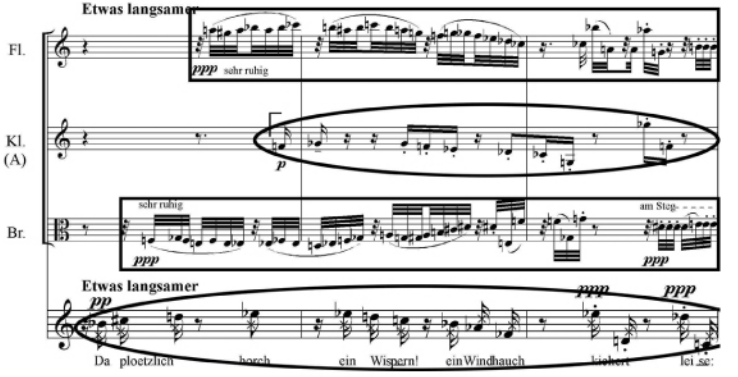
(3) '아이러니적 거리두기: 새로움 속의 전통

≪피에로≫는 전통에서 벗어난 현대적 음악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연 이 작품은 얼마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인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피에로≫에는 '전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이 작품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전통적 요소가 내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 작품에는 바로크 시대 음형이론이 적극 활용되었고, 조성의 상징도 단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숫자 상징도 ≪피에로≫와 연관된다. 그러나 전통 수용의 측면은 무엇보다도 전통적 장르와 형식의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제2번 〈콜롬비네〉와 제5번 〈쇼팽의 왈츠〉에는 왈츠 형식이 모델로 작용하였고, 제6번 〈마돈나〉에서는 트리오소나타가, 제19번 〈세레나데〉에서는 느린 왈츠 리듬이, 제20번 〈귀향〉은 "바르카롤레"라는 부제가 보여주듯이, 6/8박자의 율동감있는 진행을 통해 이 형식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피에로≫에는 대위법적 테크닉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제2부의 첫 곡인 제8번 〈밤〉은 "파사칼리아"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곡이 전통적인 파사칼리아 형식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무조적 음악의 흐름 속에서 캐논 기법이 사용되어, 대위적 진행이 중심을 이루며 바로크적 음악과의 밀접성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제3부의 두 곡, 제17번 〈패로디〉과 18번 〈달의 얼룩〉도 그렇다. 특히 〈달의 얼룩〉은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 캐논과 푸가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곡으로 유명하다. 대위적 진행이 주를 이루는 이 곡은 4가지 차원의 음 진행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첫째, 피콜로와 Bb클라리넷은 2성부 캐논을 형성한다. 둘째, 바이올린과 첼로는 옥타브 간격의 캐논을 형성한다. 셋째, 피아노는 오른손과 왼손이 독립적으로 수평적 진행을 보이며 푸가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피아노의 오른손과 왼손이 각각 피콜로와 클라리넷을 확대하여 캐논을 구성한다. 여기에 네 번째로 성악 성부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주목할 점은 이 곡은 마디10을 기점으로 현악기와 관악기의 캐논이 정확하게 역행한다는 점이다. 즉 피콜로는 ab4를 중심으로, B^b클라리넷은 f음을 중심으로, 바이올린은 eb, 첼로는 A음을 중심으로 곡의 진행이 역행을 한다. 이와 같이 〈달의 얼룩〉은 쇤베르크의 치밀한 작곡 기법이 집약된 작품이다. 음 하나하나 성부 하나하나가 모두 관련성 속에서 엄격하게 짜임새를 이루는 것이다. 이 곡에 나타난 캐논 기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베버(H. Weber)는 이 곡을 "대위법에 대한 가장 순수한 마녀의 부엌"이라고 지칭하면서, 모든 가능한 캐논적 모방이 결합되었다고 높이 평한다.

악보 예) 제17번 마디 22-24

또한 흥미로운 점은 ≪피에로≫에는 음악의 인용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6번 〈마돈나〉에서는 바흐의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BWV 1038≫의 아디지오 악장, 또는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I권의 24번 bb

단조≫ 프렐류드가, 제9번 〈피에로를 향한 기도〉에서는 바그너의 ≪파르지팔≫ 제2막의 유명한 쿤드리의 "비명"이 암시적으로 인용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곡 ≪마음의 개화≫의 모티브는 제2번 〈콜롬비네〉에서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링크만은 "≪피에로≫의 그 어떤 곡도 이미 존재하는 재료에 근거하지 않은 곡은 없다"고 말하며 이 작품을 "음악에 대한 음악"으로 규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전통의 수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재료를 활용했는가의 문제다. 즉 ≪피에로≫에서 단순히 전통적 요소가 활용된 것은 아니다. 쉰베르크는 전통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시각에서 새롭게 변형하여 자신의 고유한 음언어로 이를 변화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제5번에서 전통적 왈츠는 쉰베르크의 개성적 시각을 통해 한 단계 걸러져서 나타난다. 이 곡의 중심을 이루는 클라리넷 선율은 불규칙한 프레이즈와 무조적 음정 진행이 느린 템포에서 나타나면서 왈츠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로테스크' 한 효과를 자아낸다. 이는 '병든 여인의 파리한 핏방울' 의 이미지 속에 나타나는 '우울한 멜랑콜리 왈츠' 라는 가사의 내용을 연상시키며, 이 왈츠가 일종의 '죽음의 왈츠' 라는 암시를 강하게 한다. 즉 왈츠는 이 곡의 외형적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어긋나는 박절, 불협화적 화음, 클라리넷의 독특한 선율진행 등을 통해 왈츠는 전통적 세계를 풍자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6번 〈마돈나〉의 경우 종교적 가사를 바로크 시대의 숭고한 종교적 형식으로 포장하였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를 거친 언어로 강렬하게 표현하는 이 가사에 상투적인 종교적 장르를 연결함으로써, 쉰베르크는 신성한 종교적 아우라를 히스테리적으로 과장하면서 오히려 "신성 모독"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쉰베르크는 강렬한 음악적 표현을 위하여, 전통을 자신의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 "풍자적", "아이러니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피에로≫에서는 전통적 장르와 형식이 새로움과 조화를 이루며 개성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쉰베르크는 무조적인 강렬한 음악적 표현을 위하여, 전통의 활용과 치밀한 기법적 구도를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쉰베르크의 미학관과도 연관된다. 쉰베르크는 "예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예술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음악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어떤 새로움을 작품에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그가 추구한 새로움은 역사 진행의 한 단계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쉰베르크는 역사적 연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혁명가라고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오히려 J. S. 바흐 또는 베토벤, 브람스와 말러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통의 선상에서 자신이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쉰베르크에게 전통은 극복될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였던 것이고, 이러한 특성이 ≪피에로≫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4) "야누스의 머리" : 연곡적 구상?

≪피에로≫의 21곡은 각각 개성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8개의 악기가 각각 다르게 배합되어 독특한 음색을 창출하는 것에서도 이미 각 곡의 개별적 특성은 충분히 나타나며, 각각의 곡은 서로 다른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21곡을 묶어 주는 전체적인 구도가 이러한 다양성의 이면에 존재할까 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에로≫의 개별적 작품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연곡적 구성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는데, 이에 대해 연구한 브링크만(R. Brinkmann), 던스비(J. Dunsby), 요엔(S. Youen), 발레인(R. Vilain), 하이모(E. Haimo), 아도르노(Th. W. Adorno) 등은 흥미롭게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과연 쉰베르크는 ≪피에로≫를 일종의 연가곡(songcycle, Liederkreis)으로 기획한 것일까? 아니면 각각의 곡의 개별적 특성에 더 무게를 두었을까? 먼저 작품의 탄생사를 다시 살펴보면, 쉰베르크는 50곡의 시 가운데 21곡을 선택했고, 그 배열에 대해 계속 고민한 것을 알 수 있다. ≪피에로≫의 기본 자료(Quelle)에 의하면 쉰베르크의 첫 자필본에는 전체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12년 6월과 7월에 쉰베르크는 시를 재편성하였고, 동시에 기악적 경과구를 첨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의 내용과의 관련성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구성이 처음의 구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서사적인 스토리"가 형성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1부는 달의 시에서 시작해서 달의 시로 끝나며, '달' 을 '예술적 세계, 영감, 예술가 자신' 과 동일시하면서, 예술가를 주제로 삼고 있다. 달의 유혹적인 아름다움에 "도취"(verrückt)되고 "황홀경에 빠진"(berauscht) 예술가의 열광으로 시작하여, 영감의 낭만적 상징 · 정서와 창조적 판타지가 점점

더 커지고, 그러한 가운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통해 단계적으로 암울해지더니 〈쇼팽의 왈츠〉에서는 핏방울처럼 어두워지고 〈마돈나〉의 상처에서는 더욱 불길해지다가, 마침내 죽을 정도로 〈병든 달〉을 예술가의 "죽음에 대한 병"(노발리스)을 위한 메타포로 사용하며 마무리된다.

반면 2부는 완전히 죽음에 대한 충동의 어두움이 지배적이다. 〈밤〉의 파사칼리아 로 죽음의 주제에 의한 비극이 "음침한 검은색 거대한 나비"로 시작되면 "절망하는 한 예술가의 자기희생"을 주제로 하는 〈붉은 미사〉는 신성 모독을 보이며 전체 흐름의 중간에 오게 되며, 예술가의 "죄악"이 〈참수〉된 후, 종결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은유하는 〈십자가들〉이 등장한다. 특히 〈십자가들〉의 마지막 부분은 비극적 깊이의 핵심을 보여준다. 불레즈는 이 부분에서 "공포"의 순수한 실체가 나타난다고 평한다.

마지막 3부는 일종의 해결 부분으로서, 코메디아 델라르테 예술가의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시작하여 갈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드러낸 후, 베르가모로의 귀향으로 마무리되어, 이곳에서 피에로는 '옛 향기'와 과거를 향유한다. 이제 피에로는 달을 포기하고, 진보적 모더니즘의 이상에서 빠져나와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고향 베르가모로 복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센티멘털한 요소가 강한데, 이는 예술가와 세계 사이의 체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사의 측면에서는 ≪피에로≫를 연곡으로 볼 수 있는, 구조적 응집력이 충분히 발견된다. 쉰베르크는 가사의 선택과 배열에서 ≪피에로≫를 지탱해 주는 '건축학'을 구축하여 큰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도 뒷받침 해주듯이 ≪피에로≫의 전체 구성은 가사의 내용에 따른 형식 구도를 보여 준다.

동시에 음악양식적 측면에서도 연곡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피에로≫ 는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모티브가 나타난다. 제1번 〈달에 취하여〉에 나오는 유명한 피아노 7음 모티브(기본모티브a)는 여러 번 등장하면서, 이 곡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전체 스물한 곡 사이에는 기본 모티브 외에도 긴밀한 모티브적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제13번 〈참수〉 뒷부분에 첨가된 긴 기악 간주곡이다. 노래 부분과 대조적으로 첨가된 느리고 조용한 이 기악 파트의 음악적 재료는 대부분 앞에 나온 제7번 〈병든 달〉에서 가져온 것이다.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재료를 조합함으로써 개별적 작품의 연결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더 나아가 〈피에로〉는 악기 편성의 측면에서도 연곡적 배열의 기능을 찾아낼 수 있다. 세 부분의 연주시간이 각각 약11분 정도씩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쉰베르크가 시간적 구성도 고려하여 배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곡적 특성에 대한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음악학자 하이모(E. Haimo)는 연곡의 문제를 음악적 기법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기본모티브a'의 경우, 이 곡에서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다른 템포로 나오며 대부분 다른 음정진행을 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일반화시키자면, ≪피에로≫의 모티브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관계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곡사이의 경과구도 작곡 후에 추가한 것이며, 특히 〈병든달〉의 모티브를 사용한 기악 간주곡은 "미스테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쉰베르크는 ≪피에로≫를 작곡할 당시 순환하는 주제에 의한 음악적 구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가장 무주제적"인 특성을 가진 〈병든 달〉을 주제적 순환의 한 예로서 사용한 것은 연곡에 대한 "아이러니, 풍자, 패러디"를 드러내고자 하는 쉰베르크의 입장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무주제적인 악장의 재료를 다시 사용하고 반복하는 것보다 더 서툰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이모는 쉰베르크가 이 기악적 간주곡을 좌우 대칭적인 구도에서 빗나가게 연곡 중간의 한 부분에 삽입하면서 "의도적인 빗나감"을 통한 연곡에 대한 거리두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하이모는 "≪피에로≫의 음악적인 연곡적 특성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근소하며, 의도적으로 그렇게"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에로≫의 연곡적 구상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반대 의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쉰베르크가 가사나 음악적 구성에서 연곡적 시도를 배제하지 않은 점도 인정되지만, 조성이나 주제가 없는 자유무조성 작품의 21곡이 서로 연곡성을 갖는다는 것은 한편 매우 무리가 있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쉰베르크가 ≪피에로≫를 더욱 확실하게 연곡으로 묶어 놓을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명확하지 않은 모호성이 그의 의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작품의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적 거리두기와 풍자적 암시를 이 측면에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도르노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피에로≫가 한편으로 연가곡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 하나의 기본 성격을 유지하는 성격소곡의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작품을 "야누스의 머리"에 비유하고 있다. 여러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점이 바로 ≪피에로≫가 주는 매력 중의 하나일 것이다.

(5) "감각과 영혼의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 음악적 표현주의의 구현

기괴한 텍스트, 강렬한 성악 성부, 개성있는 악기편성, 불협화음의 지배적인 사용, 극단적인 대조 등이 어우러지면서 ≪피에로≫가 주는 인상은 강렬하다. 쉰베르크는 ≪피에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을까? 이 질문에 가장 적절한 쉰베르크의 대답은 그가 ≪피에로≫의 첫 곡 〈피에로를 향한 기도〉를 작곡한 후의 기록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느끼듯이, 절대적으로 새로운 표현으로 향하고 있다. 음향은 여기서 감각과 영혼의 움직임에 대한 아주 동물적인 직접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거의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처럼 ...

즉 쉰베르크는 ≪피에로≫에서 '새로운 표현'을 추구했고, 이는 그의 무조음악 전반에 미학적 배경을 이루는 '표현주의' 미학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준다.

1910년을 전후로 미술에서 시작하여, 음악 · 문학 · 건축 등 예술의 제 분야에서 나타났던 표현주의는 외부세계 이면에 존재하는 내면적 · 본질적 실체를 추구하여, 인간의 내면 깊숙이 억압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던 예술 경향이다. 이를 통해 표현주의 예술은 20세기 초반 당시 현대인들의 긴장과 공포, 불안과 갈등, 그리고 잠재의식 속의 충동과 반항감 등을 선의 구성이나 기하학적 색조를 통해 추상적으로 드러냈다. 표현주의 화가 칸딘스키와 직접적인 교류를 갖고, 또한 화가로서 표현주의적 그림을 많이 남긴 쉰베르크의 무조음악은 바로 이러한 표현주의 미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쉰베르크는 1919년 글에서 스스로 '표현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는 자신의 무조음악을 설명하는 중요한 틀을 형성한다. 조성의 포기에 따라 "악곡이 자신의 외형을 자기 고유 소재의 논리에서" 더 이상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느낀 그는, '내적 사건의 표현'을 끌어냈으며, 이 결과 무조음악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1928년의 글에서는 표현주의적 예술을 "그 예술 내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표현하려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표현주의 대신에 "내적 사건 묘사의 예술"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쉰베르크가 언급하는 표현주의 예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면의 세계, 주관성을 어떤 채로 걸러내지 않고 "내적 강요"에 의해 그 자체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작곡가 자신을 음악에서 표현 한다"는 것은 쉰베르크 미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를 통해 쉰베르크는 음악적 표현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이란 인간의 운명을 자신의 내면에서 체험하는 자가 외치는 비명이다. ... 그리고 내면, 인간의 내면에는 세계의 움직임이 있다.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단지 그 메아리인 예술작품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도르노는 쉰베르크 무조음악에 나타난 혁신성을 인간의 내면의 주관성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내면서 "무의식의 폭발"을 드러내는 것에서 찾고 있다:

그(쉰베르크)에게 진정 혁명적인 것은 음악에서 표현의 기능이 바뀐다는 점이다. 이제 격정 같은 것이 날조되는 일은 없으며, 음악을 매체로 무의식, 쇼크, 악몽의 살아있는 움직임이 꾸밈없이 기록된다. 그 움직임은 형식으로부터 부과되는 금기를 무시해버린다. 왜냐하면 그 금기는 살아있는 움직임을 검열해서 합리화하고 이미지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쉰베르크에게 형식의 혁신은 표현 내용의 변화와 짝을 이루어 표현 내용의 현실을 발현시키는데 기여한다. 초기의 무조적인 작품들은 정신 분석에서의 꿈의 이론과 같은 조사 기록서이다(『신음악의 철학』, p. 44).

이러한 표현주의적 직접성은 더 나아가 사회의 부조리와 추함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그것을 미메시스하는 것으로, 아도르노는 해석한다. 아도르노는 비인간적인 "관리되는 세계"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면을 쉰베르크의 음악에서 발견한 것이다.

쉰베르크의 언급과 아도르노의 설명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표현주의, 즉 내적인 것의 직접적 표현은 ≪피에로≫의 미학적 강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피에로≫에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분출, 공포와 두려움, 자기 스스로를 옥죄는 감금과 비극이 드러나다.

즉 ≪피에로≫에는 전통적 균형과 조화보다는 내적인 강요에 의한 "새로운 표현", 즉 "영혼과 감각의 직접적" 표현이 지배적이다. ≪피에로≫에 나타난 "비명", 불협화적 "폭발"은 인간 실존과 심각하게 대면하며,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음악적 표현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4. 맺음말: 새로운 미학적 패러다임의 제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쉰베르크의 ≪피에로≫를 다섯 가지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 작품을 연구하며 한동안 거의 매일 ≪피에로≫를 들었던 적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물 한 곡을 듣기 보다는, 매일 한 두 곡을 중점적으로 들었고, 그 외에는 관련 문헌들을 읽으면서 배경음악적으로 감상했다. 밤에 앉아 볼륨을 높힐 때에는 주위에 신경이 쓰였고, 어쩌다 새벽에 들을 때는 조금 기괴한 분위기도 났다. 가끔 이 곡을 들으면서 혼자 웃었는데. 정말 "발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은 말하는 선율로 트릴이나 글리산도를 하는 부분이었다. 한국말의 "발광 한다"라는 말이 어쩌면 쉰베르크가 말한 "동물적인 영혼의 움직임의 표현"과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많은 것을 마음에 담고 있고, 그것을 포장 없이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이 작품이 아닐까?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쉰베르크의 음악세계는 퍼내고 퍼내어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깊은 샘과 같았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다섯 가지 시각은 사실 이 작품에 접근하는 가능성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피에로≫는 '다양성의 구현' 이라는 20세기 음악의 미적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에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연구가 시도되었다고 할 정도로 독일어권과 영어권에서 연구가 축적되었고, 이는 아직도 계속되어 매해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그만큼 이 작품은 많은 음악학자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 왔다. 왜 그럴까? 이미 다양한 관점에 의한 ≪피에로≫ 의 연구에서 보여 주듯이, 이 작품은 놀랄만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시와 음악, 악곡 기법과 미학, 역사적 흐름, 작곡가의 시학과 작곡 양식의 발전, 사회와 예술 등 ≪피에로≫에 담겨 있는 다차원적 의미는 그 어떤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이러한 점이 바로 ≪피에로≫에 주목하는 이유일 것이다. ≪피에로≫의 스물한 곡에는 끝없이 파낼 수 있는 의미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작품은 20세기 음악의 미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전통적 미의 규범이 와해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한 새로움이 추구된 20세기 음악의 미학적 상황에서 과연 어떤 척도로 예술성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피에로≫는 모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에코는 『열린 예술 작품』에서 현대 예술의 특성으로 〈복수성〉과 〈다수성〉 또는 〈다의성〉을 언급하면서, 전통적 예술이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을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작품에서 특정한 방향을 지시하는 것에 비해, 현대 예술에서는 특수한 주제가 다루어지기 보다는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의 "장"을 제공하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예술작품은 기본적으로 다의적인 메시지로서, 단 하나의 시니피앙(의미의 담지자) 속에 담겨진 다수의 시니피에(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에코는 자신의 주장을 1950년대 이후의 음악에 연결하였지만, 필자는 20세기 초반에 작곡된 ≪피에로≫ 가 그러한 "열린 작품"의 대표적 예라고 생각한다.

현재 21세기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고자 노력하는 작곡가에게, 또한 앞으로의 음악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청중에게 ≪피에로≫는 하나의 미학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을 열어 놓고, 의미의 복합층을 하나씩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음악 작품에 대한 이상을 보여 주는 점에서 ≪피에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피에로≫의 10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Performer's Studio I

Wen-Sinn Yang, Cello

Wen-Sinn Yang | Cello

1965년 스위스 베른 출생. 1989년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데뷔하였고 1991년 제네바 콩쿨에서 우승한 이후 전 세계를 무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의 레퍼토리는 바로크 · 고전 · 낭만시대의 작품들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20세기 작품들까지 아우른다. J. S. Bach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Karl Davidov, Tchaikovsky, Dvořák, Schumann, Boccherini의 첼로협주곡을 비롯한 많은 작품을 CD 및 DVD로 발매하였으며, 1997년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초연한 Kevin Volans의 첼로협주곡, 독일 초연한 Lorin Maazel의 첼로 협주곡 〈Music for Cello and Orchestra〉를 비롯하여 Boulez의 〈Messagesquisse〉, Henri Dutilleux의 첼로협주곡 〈Toute un Monde lointain〉과 같은 현대 첼로 작품을 청중들에게 소개하는데 계속하여 힘쓰고 있다.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2005년부터는 뮌헨음대의 교수로 재직하며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강연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웹페이지 www.wensinnyang.de

Concert

9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rogram

Werner Bärtschi
Nachtbogen für Violoncello und Klavier (2009)

이신우 Shinuh Lee
Expression for solo violoncello (1993)

Aribert Reimann
Solo for Cello (1981)

Anton Webern
Drei kleine Stücke Op.11 (1914)

Claude Debussy
Sonate pour violoncelle et piano (1915)

– Intermission –

Arnold Schönberg
Kammersymphonie Op.9 (1906)
in der Bearbeitung für Violine, Violoncello, Flöte, Klarinette und Klavier von Anton Webern

Wen-Sinn Yang_Cello
최희연 Hie-Yon Choi_Piano
윤혜리 Hyeri Yoon_Flute
백주영 Ju-Young Baek_Violin
임상우 Sang Woo Lim_Clarinet

Workshop

9월 21일 (금)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이신우 Shinuh Lee | Composer

재독 작곡가 진은숙과의 만남을 계기로 작곡을 시작하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강석희를 사사하였고,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왕립음악원과 런던대학교, 서섹스대학에서 마이클 피니시를 사사하였다. 영국 체류기간동안 세계음악제, 가우데아무스 국제작곡콩쿨, 레오날드 번스타인 예루살렘국제작곡콩쿨에 입선하였고,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작곡상, 안익태작곡상, 한민족창작음악축전 대상, 난파음악상과 문화관광부가 수여하는 오늘의젊은예술가상을 수상하였다.
이신우의 작품은 BBC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심포니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Asko 앙상블, Ixion 앙상블, New Classic Community, 앙상블 오푸스 등 다양한 연주단체 및 독주자들에 의해 연주되고 있다. 최근 작품으로는 2010년 서울국제음악제 위촉작인 《클라리넷 협주곡》, 2011년 프랑스 카잘스 음악제에서 세계 초연된 클라리넷 퀸텟 《라멘트》 등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The Pathway Concert Series 및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희연 Hie-Yon Choi | Piano

6세에 인천시향과의 협연으로 데뷔하여 국내에서 이화경향, 한국, 중앙, 동아콩쿠르 등을 모두 석권하였고 비오티 국제 콩쿠르, 부조니 국제 콩쿠르, 윌리엄 카펠 국제 콩쿠르, 에피날 국제 콩쿠르, 클라라 하스킬 국제 콩쿠르, 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쿠르 등에서도 상위에 입상하며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태리 아씨씨 국제 음악제, 일본 요코하마 국제 음악제,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초청 독주회를 가졌고 베를린 심포니,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워싱턴 내셔널, 로잔느 챔버 등 유럽과 미국의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리스트의 파가니니 연습곡 전곡 및 쇼팽 에튀드 전곡 음반 출시, 퉁영 국제음악제 첫 상주연주자로 위촉, 국내 주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실내악 연주 등 귀국 후에도 다양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난파음악상을, 2005년에는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혜리 Hyeri Yoon | Flute

1992년 스위스 제네바 콩쿠르 관악부문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입상하며 유달리 관악부문에 취약했던 당시의 한국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뉴 월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디션 우승을 통해 한국 관악 연주자로는 드물게 세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스페인 테네리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티스트로도 활동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플루트 컨벤션 초청 독주회 개최, 제2회 세계 플루트 콩그레스 한국 대표 위촉, 제2회 아시아 플루트 연맹 서울대 초청 및 주관, 2009 고베 국제 플루트 콩쿠르 심사위원 위촉, 제1회 중국 플룻 협회 콩그레스 초청 강연 및 독주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플루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아울로스 목관 오중주 및 금호 체임버 소사이어티 멤버, 프랑스 프레파유 페스티벌의 창단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백주영 Ju-Young Baek | Violin

커티스 음대에 재학하던 1995년부터 시벨리우스, 파가니니, 롱티보 등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였으며, 이후 서울 국제 콩쿠르 우승,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4개의 특별상 및 동메달 수상, 뉴욕 Young Concert Artists 국제 오디션 우승 및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도약하였다. 런던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실내악주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여 미국 말보로 페스티벌, 라비니아 페스티벌, 카잘스 페스티벌, 일본 쿠사츠 음악제 초청 연주 및 세종 솔로이스츠의 리더를 역임하였다. 세계 주요 무대에서 독주회를 가져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바흐와 이자이의 무반주 바이올린곡 12곡 전곡을 하루에 완주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커티스 음대, 줄리어드 음대 대학원, 맨하탄 음대,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고 2005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최연소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임상우 Sang Woo Lim | Clarinet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독하여 데트몰트 국립 음대 석사과정(KA)을 최고 점수로 졸업하였다. 이후 스위스 바젤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Konzertdiplom)에 입학하여 수학하던 중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클라리넷 부수석으로 발탁되었다. 이화경향콩쿨, 동아콩쿨, KBS 신인 음악콩쿨에서 1위로 입상하였으며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수원시향, 광주시향 등과 협연하였다. 2010년에는 국제클라리넷협회 ICA summer festival 초청 독주회를 가지며 찬사를 받았고, 2009년부터 한국인 클라리넷연주자 최초로 프랑스 뷔페 크람폰(Buffet-Crampon) 공식 아티스트에 선정되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이화여대, 예원학교, 서울예고에 출강 중이며 서울시향 클라리넷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Performer's Studio II

Hyunah Yu, Soprano

유현아 Hyunah Yu | Soprano

한때 과학도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기도 한 소프라노 유현아는 New England Bach Festival에서 〈St. Matthew Passion〉의 솔로로 등장하면서부터 빛나는 기량을 발휘하였다. 1999년 Walter Naumburg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의 수상과 함께 Dutch International Vocal과 Concert Artist Guild International Competition의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으며, 2003년 피아니스트 Mitsuko Uchida의 추천과 함께 Borletti-Buitoni Trust Award의 제 1회 수상자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성악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2006년에는 Peter Sellars가 연출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Zaide〉의 주역으로 오페라 무대에 데뷔하며 콘서트 뿐만 아니라 오페라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고, 2007년 한국인 성악가로는 최초로 EMI 소속연주자로 계약하며 데뷔 음반을 발매하였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리사이틀 및 오페라 무대를 누비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Concert

9월 24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rogram

David Ludwig
Our Long War for soprano, violin and piano (2011)

Arnold Schönberg
Phantasy for Violin with Piano Accompaniment Op.47 (1949)

Hugo Wolf
Lieder
Elfenlied
In dem Schatten meiner Locken
Nimmersatte Liebe
Ich hab' in Penna einen Liebsten wohnen

William Bolcom
Let Evening Come for soprano, viola and piano (1994)

– Intermission –

Francis Poulenc
Fiançailles pour rire pour chant et piano (1939)

John Corigliano
The Red Violin Caprices for solo violin (1999)

Osvaldo Golijov
Tenebrae for Soprano, Clarinet and String Quartet (2002)

유현아 **Hyunah Yu**_Soprano　**Bella Hristova**_Violin
손은정 **Eun-Jung Shon**_Piano　김 범 **Bahm Kim**_Clarinet
전진주 **Jinjoo Jeon**_Violin　유효정 **Hyo-Jung Yoo**_Violin
이지윤 **Gee Yun Lee**_Viola　양지욱 **Jiwook Yang**_Cello

Workshop

9월 26일 (수) 오후 6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손은정 Eun-Jung Shon | Piano

예원학교 졸업 후 도미하여 메네스 예비학교, 피바디 음대 학사 · 석사 · 전문 연주자 과정을 거쳐 피바디 음대 최고연주자과정(Artist Diploma)을 전액장학생으로 입학 및 졸업하였다. 11세에 서울시향과의 협연으로 데뷔하여 한국일보, 삼익, 예원, 이화경향, 한국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였고 NewOrlean, St.Charles, Russell Wonderlic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였으며 Frinna Awerbuch, FiveTowns, WilliamGarrisonDuo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Moscow Symphony, Slovak Radio Symphony,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Venice 현악사중주단, Laurentian 현악사중주단, 이스라엘 신예 첼리스트 Amit Peled 등과 연주하며 실내악주자로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중 · 고, 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출강중이다.

김 범 Bahm Kim | Clarinet

서울예고 재학 중 도독하여 뮌헨국립음대를 졸업(Vordiplom, Diplom)한 후 미국 듀케인대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Artist Diploma를 취득하였으며 다시 독일로 건너가 뮌헨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Meisterklassendipolm)을 졸업하였다. 독일 Oberstdorf Musik Kurs, 프랑스 Nice Festival 등에서 연주하였고 KBS 교향악단, 서울바로크합주단, Kammerphilharmonie dacapo Muenchen 등과 협연하며 다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전진주 Jinjoo Jeon | Violin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이스트만 음대 석사 및 전문 연주자과정, 매릴랜드 주립대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선화 콩쿨 · 음악저널 콩쿠르 · 조선일보 콩쿠르 1위, 미국 Homer Ulrich 콩쿠르 현악부문 1위, 이태리 파도바 국제 콩쿠르 2위를 수상하였고 이블라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부천시향, 코리안 심포니, Jewish Community Orchestra 등과 협연하였고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 예술의전당 리사이틀 홀 등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현재 숙명여대, 선화예중 · 고에 출강 중이며 서울 바로크 합주단 단원 및 서울신학대 콘서바토리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효정 Hyo-Jung Yoo | Violin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The Juilliard School을 졸업(Graduate Diploma과 Master of Music)하였고 Indiana University에서 전액장학생으로 수학하며 Artist Diploma를 취득하였다. 뉴욕 Y Foundation의 Chamber Music Award for Young Ensemble 수상, 2006년 뉴욕 5타운 competition에서 1위를 수상하였고 아티스트인터내셔널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Aspen Music Festival, Music Academy of the West, JM 데뷔 시리즈 등 유럽 · 미국 · 중국 · 멕시코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연주활동을 펼쳐 왔다. 현재 상명대, 서울예고에 출강 중이며 현대음악앙상블 Eclat과 서울바로크합주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지윤 Gee Yun Lee | Viola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후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과정과 예일대학교 음악대학 아티스트 디플롬 과정을 졸업하였다. 서울 청소년 실내악 콩쿨, 세계일보 콩쿨에서 우승하였으며 코리아 심포니, Bachnalia Festival 협연 및 Tibor Varga Music Festival in Sion, Fame Festival in New 등의 페스티벌, 금호영아티스트 독주회, Paul Hall 및 Sprague Hall 리사이틀 등 다수의 독주와 실내악 무대에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 왔다. 현재 수원시립교향악단의 부수석으로 활동하며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교대에 출강 중이다.

양지욱 Jiwook Yang | Cello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KBS 신인음악콩쿨 1위, 해외파견 음협 콩쿨 1위, 중앙음악콩쿨 2위를 수상하였고 일본 Viva Hall 국제첼로콩쿨에서 입상하였다. 현재 세종솔로이스츠, 현대음악 앙상블 에클라, 에라토, 조이오브스트링즈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2012 Autumn Season

Performer's Studio III

Bella Hristova, Violin

Bella Hristova | Violin

1985년 불가리아 플레벤 출생. 커티스 음대를 졸업하고 인디애나 음대에서 Artist Diplom을 취득하였다. 2006년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of Indianapolis에서 입상하였고 2007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Michael Hill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과 2008년 뉴욕 국제 영 아티스트 오디션에서 우승하였다. 뉴욕 스트링 오케스트라와의 카네기홀 공연, Pinchas Zukerman과 성 누가 오케스트라와의 링컨센터 공연 등 솔리스트로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링컨센터의 Chamber Music Society Two의 멤버로서 실내악 연주자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웹페이지 bellahristova.com

Workshop

9월 26일 (수)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2012 Autumn Season

Composer's Studio

David Ludwig

David Ludwig | Composer

1974년 펜실베니아 출생. 오벌린 음대, 맨하탄 음대, 커티스 음대, 줄리어드 음대에서 수학하였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현대음악계의 대가인 John Corigliano, Ned Rorem 등을 사사하였다. American Composers Forum, American Music Center 등으로부터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Marlboro Music School, Isabella Gardner Museam 등 여러 저명한 예술기관의 상주 작곡가로 활동하였다. 그의 작품은 Eighth Blackbird Ensemble,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연주단체 및 오케스트라에 의해 세계 각지에서 연주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League of American Orchestras에 의해 그 해 가장 자주 연주된 현존 작곡가의 작품 10곡 중의 하나로 그의 〈Concertino〉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상주작곡가를 역임한 버몬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현재 전속 현대음악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2002년부터 커티스 음대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며 '커티스 20/21 현대음악 앙상블' 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웹페이지 www.davidludwigmusic.com

Lecture Concert

9월 24일 (월)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미래와 전통: 현대적 작곡을 통한 과거의 해석

David Ludwig은 시, 문학, 시각예술, 그리고 특히 과거 시대의 음악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는 작곡가이다. 이번 렉처 콘서트에서는 현대음악의 고전이라 불리는 쇤베르크의 〈달에 흘린 피에로〉를 기초로 하여 작곡된 David Ludwig의 작품 〈Lunaire Variations for solo piano〉(2012)가 연주되며, 강연은 이 두 작품 간의 관계 및 〈Lunaire Variations〉를 통하여 볼 수 있는 David Ludwig의 음악철학 및 창작과정에 집중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Composition Lesson

9월 25일(화)~26일(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20동 422호

Concert

9월 27일 (목)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rogram

David Ludwig
Flowers in the Desert for clarinet, viola and piano (2009)

David Ludwig
Three Yiddish Dances for piano trio (2010)

전상직 Sangjick Jun
3 Pieces for Violin solo (2002/2007) 中 **Before & After**

David Ludwig
Scenes from Childhood for cello and piano (2008)

– Intermission –

David Ludwig
Five Ladino Songs for solo violin (2012)

David Ludwig
From the Rubáiyát of Omar Khayám
for mezzo-soprano and ensemble (2008)

David Ludwig_Cond.

유현아 **Hyunah Yu**_Soprano

Bella Hristova_Violin

SNU New Music Ensemble
박연민_Piano **김혜지**_Violin **김지원**_Viola **현세은, 최예지**_Cello
조은솔_Double Bass **강석원**_Clarinet **홍유진**_Bassoon **정태민**_Trumpet
박은서_Trombone **김지연**_Piano

전상직 Sangjick Jun | Composer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 대학원, Universität Mozarteum in Salzburg를 졸업하였다. 2006년과 2010년에 대한민국작곡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SNU New Music Ensemble

〈SNU New Music Ensemble〉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젊고 실력 있는 현대음악 전문단체로, 음악사를 통해 검증된 20세기 작품들과 현존하는 작곡가들의 작품 초연을 목적으로 2004년 창단되었다. 2004년 〈앙상블 앵터꽁탱포랑〉(The Ensemble InterContemprain)의 솔리스트 강혜선과 함께 파스칼 뒤사팽 (Pascal Dusapin)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한국 초연하였으며, 2005년 〈앙상블 모데른〉(Ensemble Modern), 〈윤이상 아카데미〉와 연주를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교수인 게르하르트 뮐러-혼바흐(Gerhard Mueller-Hornbach)의 지휘로 〈TIMF 앙상블〉과 함께《스튜디오 2021》의 아카데미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07년 〈현대성악 앙상블 VECM〉과 《스튜디오2021》 'Vocal Music Project' 에 참여했다. 또한 〈스콜라 하이델베르크〉(Schola Heidelberg)의 예술 감독인 발터 누스바움(Walter Nussbaum)이 지휘한 'Sacred Music Project' 연주, 2008년 〈EAMT Ensemble〉(Estonia Academy of Music and Theatre)과의 연주를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SNU Young Pianist s' Studio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피아노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최가 되어 연주하는 첫 현대음악 콘서트로, Studio2021 공모를 통해 선발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재학생들의 작품으로부터 한국 작곡가 김현민, Studio2021 초청작곡가 David Ludwig, 그리고 이제는 현대음악의 고전이 된 Luciano Berio의 작품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현대 피아노 작품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Concert

10월 29일 (월)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rogram

John Adams | **China Gates** for piano (1977)
노한솔 Han-Sol Noh

김현민 Hyeon-Min Kim | **12 Etudes** for Piano (2009) 中 No.1, 4, 12
이진현 Jin-Hyeon Lee

John Corigliano | **Etude Fantasy** for piano (1976)
이예나 Ye-Na Lee

Salvatore Sciarrino | **De La Nuit** per pianoforte (1971)
이소인 So-In Lee

Carl Vine | **Piano Sonata No.1** (1990)
이미연 Mi-Yeon Lee

– Intermission –

David Ludwig | **Lunaire Variations** for solo piano (2012)
노한솔 Han-Sol Noh

유리나 Ri-na Yoo | **5 Pieces** for piano solo (2010~2012)*
박경선 KyoungSun Park

Luciano Berio | **Sequenza IV** for piano (1966)
윤유정 Yoojung Yoon

Tan Dun | **Eight Memories in Watercolor** for piano solo (1978)
현가람 Ka-Lam Hyun

박강준 Gang June Park | **3 Requirements** for 2 Pianos (2012)*
박강준 Gang June Park, **최현호** Hyun-Ho Choi

* Studio2021 공모 당선작

노한솔 Han-Sol Noh | Piano

틴에이져 콩쿠르 1위, 음악세계 콩쿠르 대상, 일본 오사카 국제콩쿠르 2위를 수상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진현 Jin-Hyeon Lee | Piano

국민일보 한세대 콩쿨 1위, Beij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oncerto competition 1위, 동아 음악 콩쿠르 2위를 수상하였으며, 광주시향, 서울예고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예나 Ye-Na Lee | Piano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소인 So-In Lee | Piano

소년소녀한국일보 콩쿨 금상, 틴에이져 콩쿨 1위, 인터내셔널 콩쿨 1위, 세계일보 콩쿨 1위를 수상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3학년 재학 중이다.

이미연 Mi-Yeon Lee | Piano

벡스타인 삼익 콩쿠르 1위, 한미 콩쿠르 1위, 음악저널 콩쿠르 1위, 해외파견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박경선 KyoungSun Park | Piano

세계일보 콩쿠르 1위, 한국 리스트 콩쿠르 1위, 서울 청소년 실내악 콩쿠르 금상을 수상하였고 DMZ 연천국제음악제 폐막식에서 연주한 바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윤유정 Yoojung Yoon | Piano

학생음협콩쿠르 1위, 음악세계콩쿠르 전체 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음악콩쿠르 최우수상, The 1st Asia-Pacific International F. Chopin Piano Competition 2위, 대구음협 전국음악경연대회 전체대상, 대한민국 인재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대구시향과 협연한 바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현가람 Ka-Lam Hyun | Piano

아시아 국제 쇼팽 콩쿨 1위,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콩쿨 1위,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콩쿨 1위, 음악세계 콩쿨 전체 대상을 수상하였고 예술의전당 초청 영재 콘서트에 출연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박강준 Gang June Park | Composer, Piano

광주피아노듀오대회 전체대상, 중앙음악콩쿠르 작곡부문 1위를 수상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최현호 Hyun-Ho Choi | Piano

한국리스트콩쿠르 1위, Berlin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2위,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콩쿠르 2위를 수상하였고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에서 협연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SNU Young Composer's Studio

Studio2021 공모를 통해 선발된 여섯 작품이 연주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젊은 작곡가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Concert

10월 31일 (수)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rogram

이현진 Hyun Jin Lee
Pieces for String Quartet (2011/2012)

유혜림 Hyerim Yoo
Remembrance for Tenor, Flute, Clarinet, Cello and Piano (2012)

신나리 Nari Shin
Contrast II for String Quartet (2010/2012)

유리나 Ri-na Yoo
String Quartet No.3 (2011)

김새암 Sae-ahm Kim
Danse Macabre pour Flûte, Clarinette, Violon et Piano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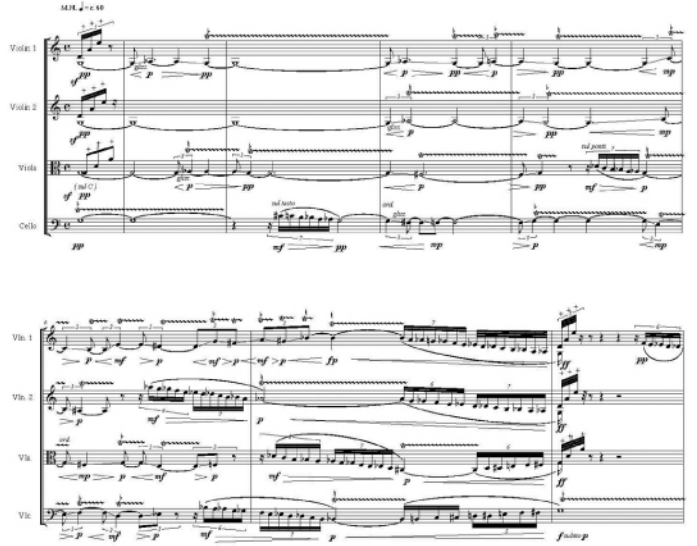
신은지 Eun Jee Shin
Glimmer for 7 Players (2012)

연주 : **SNU New Music Ensemble**

이현진 Hyun Jin Lee | Composer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2011년 Studio2021 Young Composers' Studio에서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사 : 전상직, 김현민)

Pieces for String Quartet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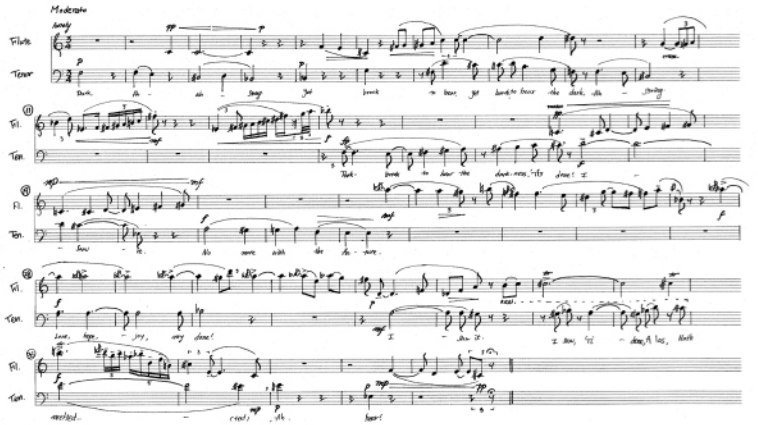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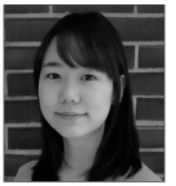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G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큰 흐름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주제적 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도록 하였다. 곡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은 길의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것처럼 음역의 축소, 확대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였고, 주제적 요소는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거나 또는 흐름을 방해하며 긴장감을 주도록 하였다. 1악장에서는 G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주제적 요소를 제시하였고, 2악장에서는 주제적 요소에 집중하여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풀어 놓았으며 3악장에서는 음역과 다이나믹을 확장시켜 더 큰 흐름을 만들었고 앞서 제시되었던 요소들을 다시 재현하며 마무리 하였다.

유혜림 Hyerim Yoo | Composer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사사 : 이신우, 이안식)

Remembrance for Tenor, Flute, Clarinet, Cello and Piano (2012)

I. Lamento _ Remembrance
II. Sigh
III. Anomie
IV. Recitative _ Beherzigung & Erinnerung
V. Cantabile _ So, we'll go nomore A-ro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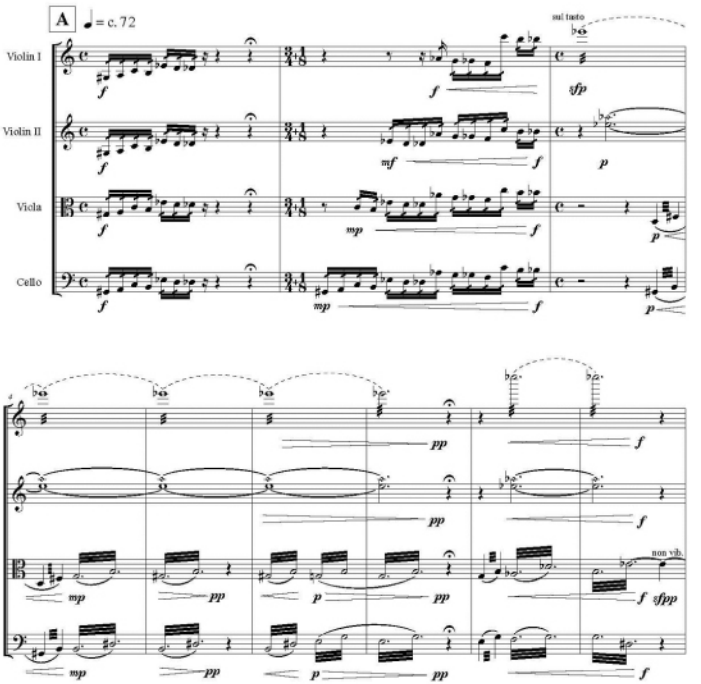
"Willst du immer weiter schweifen? Sieh, das Gute liegt so nah.
왜 그대는 멀리서 방황하는가? 보라, 좋은 것이 아주 가까이에 있단다." _ Erinnerung [경고] 중, J. Goethe

사랑을 노래하거나 충고를 던지는 고전 시들을 엮어, 20대의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었다. 세 곡에 삽입 된 여섯 편의 시에서 말하듯,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음악-'은 가장 가까운 곁에 있으니 다시 앞으로 나가자는 말을 지친 나에게 하고 싶었다. 각 악장의 제목은 악장에 쓰인 시의 제목이거나 임의로 붙인 단어인데, 이는 곧 이 음악 자체와 내용을 의미한다.



신나리 Nari Shin | Compo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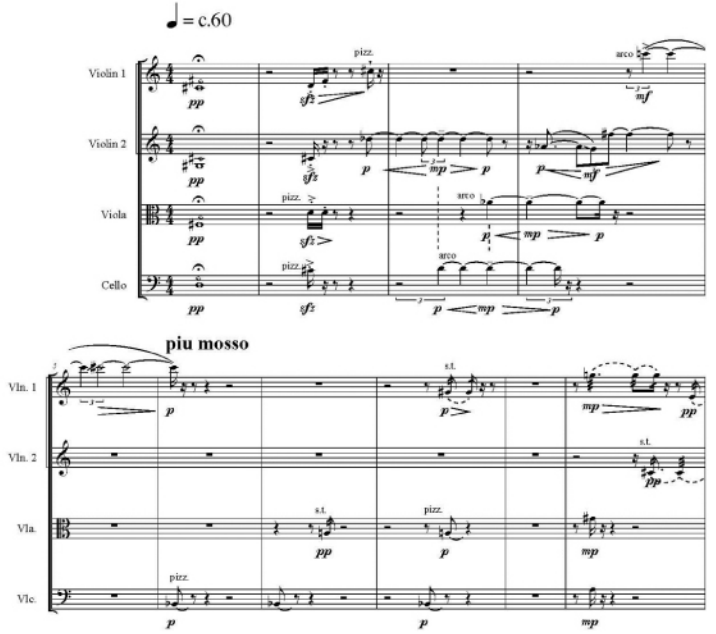
선화예술중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제22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사사 : 정태봉)

Contrast II for String Quartet (2011/2012)

나는 대조적이면서도 다양한 음악적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면에 정성을 기울여 왔다. 이 곡에서는 다양한 재료들을 여러가지 parameter를 동원하여 투영시키는 방법, 한 두가지의 제한적인 재료들을 다양하게 변형시켜 통일성을 지닌 큰 작품으로 구성하는 방법 등을 염두에 두었다. 대조적인 음소재, 화성, 제스처, 텍스처 등의 면에서 각 섹션이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도록 하면서도 작품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유리나 Ri-na Yoo | Compo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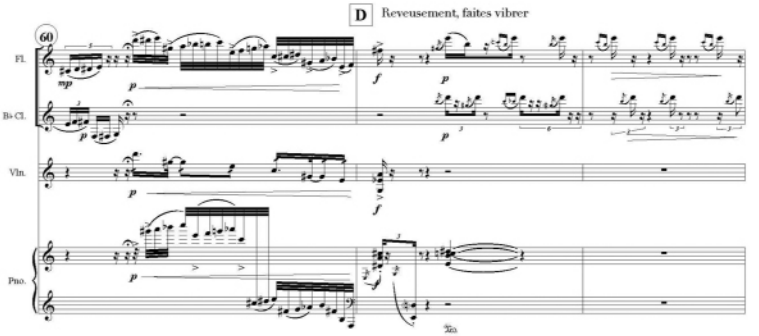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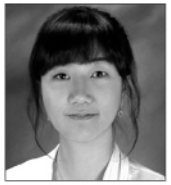
국립국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작곡전공을 졸업(작곡과 작곡전공 복수전공)하고 현재 동 대학원 작곡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제75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2012 음악춘추 우수신인 데뷔연주회에 출연하였고 제38회 범음악제, 2010 Koran Music Project, 2011 NONG PROJECT, Studio2021 Young Composers' Studio, 창작음악연주회, 제44회 서울창작음악제에서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사 : 전상직)

String Quartet No.3 (2011)

'시간' ,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흐름에 참여한다. 화가는 정해진 공간 내에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영원을 넘보는 반면, 작곡가는 제시와 전개, 재현 등의 음악적 어휘로 시간을 뒤흔든다. 이처럼 음악의 구성을 통한 시간여행이 본 작곡학도가 가졌던 화두였다. 1악장에서는 수평적으로 펼쳐진 하나의 음정단위와 그것의 템포변화가 주요 작곡기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내게 '시간의 유연한 흐름' 을 상징한다. 2악장은 이와 반대로 '시간의 급작스런 변화' 를 다룬다. 최소 음정단위를 엮어 만든 하나의 음렬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도중, 그것은 갑자기 정지하고 또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움직인다. 3, 4악장에는 이러한 시간을 잠깐이나마 '5분 전으로' 돌려보고싶었다. 앞서 사용한 주제적 음정단위를 수직적으로 쌓아 만든 음향이 흘러가고 종국에는 1, 2악장의 요소들을 재현해넣었다.

김새암 Sae-ahm Kim | Composer

브니엘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제 73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에 출연하였으며 제 33회 창악회 작곡콩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 44회 서울창작음악제와 2011년 Studio2021 Young Composers' Studio에서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사 : 이신우)

Danse Macabre pour Flûte, Clarinette, Violon et Piano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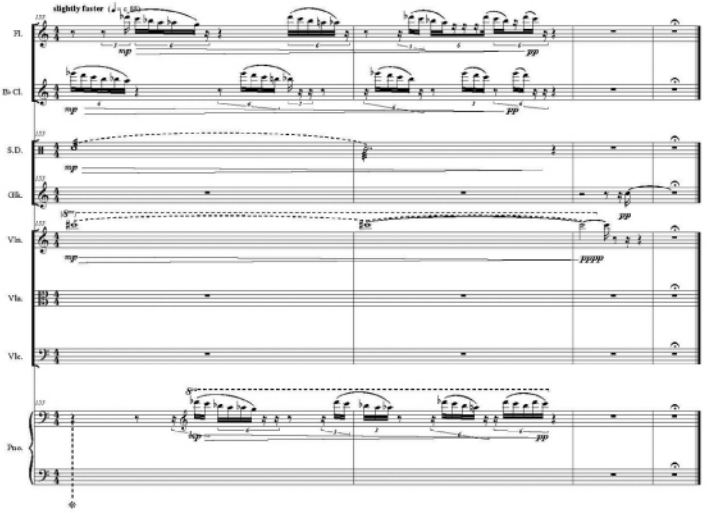
Danse Macabre, 우리말로 죽음의 무도라고 불리는 이 주제는, 음악뿐 아니라 미술과 문학에서도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작품화 되어왔다. 19세기의 작가 앙리 카잘리스의 시 "죽음의 무도회"에서는, 사자(死者)가 새벽이 밝아오기까지 광란의 춤을 추었던 모습을 묘사한다. 나의 작품은 이러한 시를 바탕으로 하여 생명력이 흩어진 상태인 "죽음"을 에너지가 사라진 음악적 파편을 통해 드러내려 하였고, 그와 대비되는 생명력이 있는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생명의 그릇이 되는 육체를 온전히 다 사용하는 "춤", 그 춤에 수반되는 춤곡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였다.



신은지 Eun Jee Shin | Composer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제 18회 학생 음협 콩쿠르 작곡부문 1위, 제 3회 광주 피아노아카데미 창작피아노독주곡 작품공모전 1위, 제 33회 창악회 작공콩쿨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 Studio2021 Summer Academy Concert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사사 : 전상직, 김현민, 정승재)

Glimmer for 7 Players (2012)

GLIMMER : (희미하게) 깜박이는 빛

이 작품은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먼저 곡의 클라이맥스(climax)의 이미지를 영감으로 얻어 작곡하게 되었다. 흔히 클라이맥스라 하면 다이내믹이 점점 커지고 음역이 점점 넓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의 1악장에서는 그와는 다르게 절제된 클라이맥스를 구축하였다. 문학에서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한 것이 오히려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와 닿는 것처럼 표현은 절제되었지만 그 안에 에너지가 내재되어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먼저 구축한 클라이맥스의 이미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고안하고, 배치하였다. 2악장은 간주곡(intermezzo)으로 피아노 솔로로 진행되며, 피아노의 sostenuto 페달을 이용해 건반을 누르는 소리와 잔향으로 지속되는 소리를 상이하게 하여, 작품의 주된 요소를 청자가 분명히 인지 할 수 있게 하였다. 3악장에서는 1악장에 사용되었던 '깜박이는 빛' 을 나타내는 음들이 곡 전반에 드러나며, 큰 단위의 프레이즈(phrase)와 그것 안에 작은 움직임들이 생성하는 에너지를 조절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Performer's Studio IV

Chen Halevi, Clarinet

Chen Halevi | Clarinet

1971년 이스라엘 아라드 출생. 15세에 주빈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데뷔한 이후 미국 • 유럽 • 일본의 유수 오케스트라 및 현악 사중주단과 협연,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연주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대음악 전문 연주자로도 정평이 나 있는 그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Magnus Lindberg의 〈Kraft〉, Bayerischer Rundfunk의 위촉작품인 Sven Ingo Koch의 Clarinet Concerto를 비롯하여 많은 저명 작곡가들의 헌정 작품을 연주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ClaRecords' 를 설립하여 새로운 현대음악 작품들을 위촉 • 출반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재 트로싱엔 음악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음악 목관 6중주단 'WindsUnlimited' 와 탱고음악 연주단체 'Tango Factory' 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흥미로운 작업에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웹페이지 www.clarichen.com

Concert

11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Program

Sven Ingo Koch
les Asperges de la lune für Klarinette (2005)

Magnus Lindberg
Acequia Madre for clarinet and piano (2012)

Bruno Mantovani
L'ère de rien pour flûte, clarinette et piano (2002)

– Intermission –

정태봉 Tai-Bong Chung
Gil II für Solo Klarinette (2011)

Krystof Maratka
Czardas VII pour clarinette et piano (2011)

Philippe Hersant
Im Fremden Land pour clarinette, quatuor à cordes & piano (2002)

Chen Halevi_Clarinet
윤혜리 Hyeri Yoon_Flute
김진선 Jinson Kim_Piano
전지훈 Jihoon Jun_Piano
SNU New Music Ensemble

Workshop

10월 30일(화)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소연습실

정태봉 Tai-Bong Chung | Composer

대구에서 출생하였으며 성장기를 한국 남쪽의 작은 도시인 진주에서 보냈다. 음악대학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기 전까지 독학으로 피아노와 음악이론을 공부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독일 Karlsruhe 국립음악대학 대학원의 Konzertexamen과정을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시절에는 중앙음악콩쿠르의 작곡부문에 입상한 바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장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독일 유학 중에는 소프라노와 2대의 플루트, 피아노를 위한 〈**하늘소리**〉가 Karlsruhe 현대음악제에 입선, 연주되었다. 1999년 〈Nidana〉 for String Quartet으로 대한민국 작곡상을, 2002년 교향시 〈백두대간〉으로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에 한국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태봉은 관현악곡, 실내악곡, 독주곡, 합창곡, 가곡, 한국 전통악기를 위한 곡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이미 많은 작품을 작곡함으로써 그의 세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혜리 Hyeri Yoon | Flute

1992년 스위스 제네바 콩쿠르 관악부문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입상하며 유달리 관악부문에 취약했던 당시의 한국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뉴 월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디션 우승을 통해 한국 관악 연주자로는 드물게 세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스페인 테네리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티스트로도 활동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플루트 컨벤션 초청 독주회 개최, 제2회 세계 플루트 콩그레스 한국 대표 위촉, 제2회 아시아 플루트 연맹 서울대 초청 및 주관, 2009 고베 국제 플루트 콩쿠르 심사위원 위촉, 제1회 중국 플룻 협회 콩그레스 초청 강연 및 독주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플루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아울로스 목관 오중주 및 금호 체임버 소사이어티 멤버, 프랑스 프레파유 페스티벌의 창단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진선 Jinson Kim | Piano

17세에 잘츠부르크 음대에 조기 입학,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피아노 실기 전공과 음악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잘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졸업하였다. 독일 연방 청소년 콩쿠르(Jugendmusiziert), 아르투어 슈나벨 콩쿠르에서 입상하였고 Steinway 대학생 콩쿠르 특별상 및 Alice-Samter 실내악 콩쿨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베를린오케스트라, 부산시향 등과 협연하였으며 Washington D.C. 주미 독일대사관의 German Weeks 페스티벌, 독일 브람스 기념행사 등에서 초청 연주를 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와 가천대학교에 출강 중이며 한국 · 독일 · 미국 · 일본 · 프랑스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지훈 Jihoon Jun | Piano

예원학교 재학 중 도오, 14세의 나이로 Mozarteum 국립음대 학사과정(Bachelor)에 최연소 입학하여 학사 및 석사과정을 최연소 및 최우수로 졸업하였고 베를린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수석 졸업하였다. 한국일보 콩쿨 대상, Vienna Joseph Dichler 피아노 콩쿨 1위, Porto 국제 피아노 콩쿨 3위 및 최연소 특별상, Yehudi Menuhin 실내악 콩쿨 1위, 비엔나 Beethoven 국제 피아노 콩쿨 2위 없는 3위, Vladigerov 국제 피아노 콩쿨 2위 및 Scarlatti 특별상 등 국내외 콩쿨에서 입상하였고 Berlin Philharmonie, 서울바로크합주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2 Autumn Season

Performer's Studio V

Ekkehard Klemm, Conductor / SNU Singers & Players

〈Schönberg, Pierrot Lunaire Op.21〉

올해로 작품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1912)는 이번 시즌 Studio2021 의 매우 중요한 테마이다. 음악학자 오희숙 교수의 강연과 클라리네티스트 Chen Halevi, 지휘자 Ekkehard Klemm의 리허설 지도 등을 통해 한 학기 동안 본 작품에 대한 공부 및 연습 과정을 거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 성악과 학생들이 세 개의 팀을 구성하여 〈달에 홀린 피에로〉 전곡을 서울대 최초로 무대에 올린다.

Concert

12월 10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연주 : **SNU Singers & Performers**
지휘 : **Ekkehard Klemm**

Ekkehard Klemm | Conductor

1958년 독일 켐니츠 출생. 드레스덴 음대에서 지휘, 작곡, 피아노를 공부하였다. 그라이프스발트 오페라하우스 수석지휘자, 포어포메른 극장 수석지휘자, 뮌헨 개르트너플라츠 국립극장 지휘자를 역임하였으며 스웨덴 · 그리스 · 이탈리아 · 폴란드 · 체코 · 스위스 · 미국 · 아르마니 등 세계 각지의 주요한 오케스트라 객원 지휘자로도 활동하였다. 현재 드레스덴 음대 지휘과 교수 겸 총장, 드레스덴 싱아카데미의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웹페이지 www.klemmdirigiert.de

SNU Singers & Performers

박정아, 성이현, 김현정_Soprano
한지은, 권영인, 김문수_Flute
김진수, 강석원, 이진아_Clarinet
권그림, 윤지연_Violin
이상윤_Viola
임재린, 허예은_Cello
박상아, 안현정, 김예은_Piano

STUDIO2021 EDITION & CDs

STUDIO2021 EDITION

produced by STUDIO2021 | published by 음악춘추사

전상직 | Sangjick Jun

SE1001
Beyond Description for strings
SE1002
Magnificat for mixed choir & strings
SE1003
Ensemble Multicolore-II for Woodwind quintet
SE1004
Linie-IV for PIRI & Strings
SE1101
3 Pieces for Violin solo
SE1102
Linie-II for Clarinet and Piano
SE1103
Composition with 3 Interludes for string trio
SE1104
5 Bagatelles for brass quintet
SE1105
4 Lieder for Soprano and Piano

정태봉 | Chung, Tai-Bong

SE1106
교향시 "한국(韓國)" / Symphonic Poem "Korea"
SE1107
교향시 "고구려(高句麗)" / Symphonic Poem "Koguryeo"

최우정 | Uzong Choe

SE1108
Préludes pour piano, livre I
SE1109
Air for piano and string quartet
SE1110
Sonatine for violoncello and piano

STUDIO2021 CDs

produced by STUDIO2021 | mastered by Soundsketch

김정길 | Chung-gil Kim
원형상(源形象, urfigu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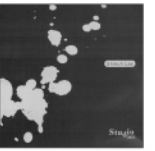
4인의 타악기를 위한 원형상 (2002)
가야금과 두 그룹의 타악기를 위한 원형상 (1999)
현악합주를 위한 원형상 – 변이 (2003)
독주 호른과 8인의 호른합주를 위한 원형상 (2000)
플룻과 가야금을 위한 원형상 (2004)
현악합주를 위한 원형상 – 고향 (2004)

장정익 | Cheun-iek Chang

Cheng-iek Chang at 60 "虛堂"

독주 / Solo for Clarinet (1973)
갑사(甲寺) / Gap-sa for Clarinet and Piano (1982)
그림자 나무 / The Shadow Tree (1998)
명(鳴)II / Myung II for Flute, Clarinet, Bassoon and Piano (1988)
"사랑하는 이의 잠"에 부쳐 / On "My Lover's Slumber" (1995)
풀잎의 영혼 / The Spirit of Leaves (2000)
허당(虛堂) / Huh-Dang for Korean Traditional Orchestra (2004)

이신우 | Shinuh Lee



보이지 않는 손 / Invisible Hands for Violin and Orchestra (2000/2008)
열린 문 / An Open Door for Strings (2004)
주를 찬미하라 / Violin Fantasy No.2 Laudate Dominum (2006)

Studio2021 Scared Music Project

"Psalmen"

Charles Ives (1874~1954)
〈The Sixty-Seventh Psalm〉 for Full Chorus of Mixed Voices, a cappella (1984)

Beat Furrer (1954~)
〈Psalm〉 for Choir a cappella (1997)

Johannes Brahms (1833~1897)
〈Psalm 13 op.27 "Herr, wie lange willst du mein so gar vergessen"〉
for Female Voices and String Orchestra (1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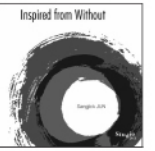
Morton Feldman (1926~1987)
〈Rothko Chapel〉 for Soprano, Alto, Mixed Choir and Instruments (1971)

Sangjick Jun (1963~)
〈Magnificat〉 for Mixed Choir and Strings (2007)

Juneyoung Joo (1983~)
〈Pater Noster〉 for Choir, Two Horns and String Orchestra (2007)

Igor Stravinsky (1882~1971)
〈Mass〉 for a Mixed Chorus and a Double Wind Quintet (1948)

전상직 | Sangjick Jun



"Inspired from Without"

Beyond description for strings (2008, Hwaum project Op. 66)
Ensemble multicolore II for woodwind quintet (2008)
3 Pieces for Violin solo (2002/2007)
4 Compositions with 3 interludes for string trio
(2003/2005, Hwaum project Op.16)
Magnificat for mixed choir & strings (2007)

"Lines & Songs"

Linie-IV for PIRI & Strings (2010)
Concerto grosso for strings (2008)
Linie-II for Clarinet & Piano (2002)
5 Bagatelles for brass quintet (2007)
Linie-I for Oboe & Vibraphone (1994)

정태봉 | Chung, Tai-Bong
"4 Symphonic Po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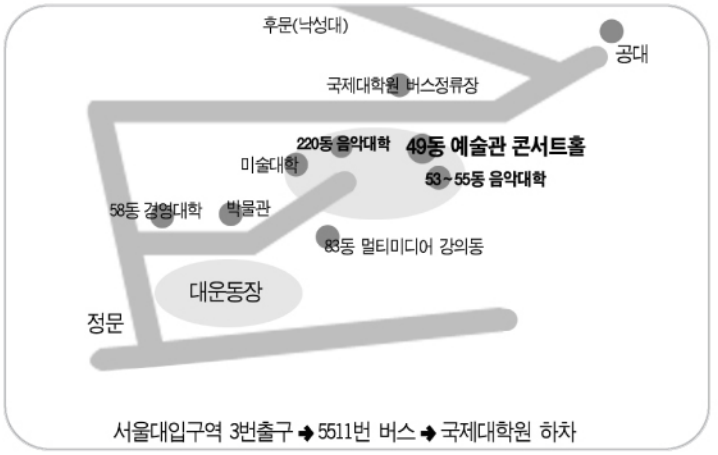
교향시 "백두대간(白頭大幹)" / Symphonic Poem "Baekdu Mountains"
교향시 "남강(南江)" / Symphonic Poem "The Nam River"
교향시 "한국(韓國)" / Symphonic Poem "Korea"
교향시 "고구려(高句麗)" / Symphonic Poem "Koguryeo"

최우정 | Uzong Choe
"Préludes pour piano, livre I"

No.1- No.12

| 음반 및 악보 문의 | 02-880-794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오시는 길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 ➔ 5511번 버스 ➔ 국제대학원 하차

Organizing Committee

Music Director
이신우

Co-Programer
최희연

Executive Committee
정태봉
이돈응
전상직
최우정
김규동

Secretary / Editor
유영지

Assistants
유웅재 김새암 유혜림 장아름
유리나 지현주 신은지 공혜린

SNU New Music Series | **STUDIO202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20동 410호 음악대학 작곡과사무실
Tel.02) 880-7944 Fax.02) 878-7064 http://www.studio2021.co.kr